

불교신문 2천 호 발행 축하 메시지

불교신문이 2천 호를 맞이했습니다. 44년만의 경사입니다. 법장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, 그리고 불교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.

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실천하는 데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. 우리 사회에 건강한 정신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.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앞으로 더 큰 발전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불교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큼니다. 무엇보다 국민 화합의 큰 물줄기를 일으켜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얼마 전 사패산 문제에 대해서 불교계가 대승적 결단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.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의 협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정을 잘 수행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다시 한번 불교신문 2천 호 발행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.